



2021년 3월 21일(제1027호) 시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의 사랑”

오늘 본기도에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본일까요? 그 질문을 안고 복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그리스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 뵈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곧바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란,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신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괴로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제자들을 향한 당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막힘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조차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기다리셨는지, 하늘에서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신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구절은 27절을 전체 문맥 안에 짧게 끼어 있습니다. 27절을 제외한 23절부터 31절까지의 예수님은 무소 같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두려움도 뒤로 한 채 당신의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막든 붙잡든 아랑곳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7절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시서는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몰라 하십니다.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예수님은 결국 꺼내놓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자신을 처연히 고백하십니다. 거기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어찌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피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걱정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약한 마음이 전혀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하는,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힘겹고 피곤한 세상의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입니다. 그 사랑에 기댈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갈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법’을 우리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신앙인이 때론 희생하고, 때론 손해 보고, 또 때론 인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넓어서도, 착해서도, 거룩해서도, 또 바보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서 목숨까지 내어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한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는 복음 속 장면을 회상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응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우리도 구원을 품에 초대하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옳은 길입니다. 어렵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승원(베드로) 신부
은성대(19집비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립 송
제 2 독 시
복음 본보송

예레 31,31-34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히브 5,7-9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2,20-3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여섯 번째 시한

하느님의 안배로 그 일행 중에 김(金) 프란치스코라는 조선의 연락원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에게 신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온 중국인 안내자들을 멀리서 뒤따라오게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 보면 신부님들은 종교의 이유로 살해되었고, 200여 명의 신자들도 사형되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지도급 인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토마스(최양업)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친(최경환 프란치스코)은 곤장으로, 모친(이성례 마리아)은 칼을 받아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 역시 많은 고난을 당하여 부친(김제준 이냐시오)은 참수되었고, 모친(고 우르술라)은 의탁할 곳이 없는 비참한 몸으로 이곳 저곳의 신자들의 집들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매우 많으나 여기에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장황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울 (앵베르) 주교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배신자와 포졸들의 수색을 받으시어 수원(水原)이라는 곳에 은신하셨는데, 유다스(김여상)가 지옥의 심부름꾼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당도하자, 주교님은 쉽사리 더 피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포졸들 앞에 나아가 재판소로 끌려가셨다 합니다.

주교님은 (모방, 샤스탕) 신부님 두 분도 자수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전멸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서한을 보내 두 분의 신부님들을 서울로 불러 올려 다 같이 한 날에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다 합니다.

오! 이분들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얻은 후, 황제의 붉은 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천상 성소로 개선 용사로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¹⁾ <다음 주에 계속>

1) 당시 앵베르 주교는 8월 10일에 송교 마을에서 나와 자수하였으며, 모방과 샤스탕 신부는 주교의 지시를 받고 9월 6일 홍주에서 자수하였다. 그리고 형벌과 문초를 받은 뒤 1839년 9월 21일(양력) 군문 효수의 판결을 받고 새남터 형장에서 함께 순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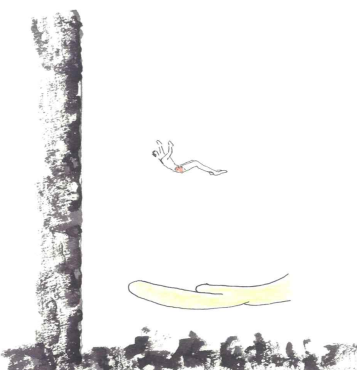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계산도, 걱정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자.	미리,
걱정도 하지 말자.	계산하지도,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은	
넘만 믿고	그저
내 몸을	지금은
저 하늘에	하늘을 즐겨라.
날릴 때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



보티첼리, 1490년 작
 피날 위 템페리, 140x207cm / 알테 피나코텍, 독일 뮌헨

이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 같은 세속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지도 모르나, 말년의 보티첼리는 그 당시에 피렌체를 강타했던 사보나롤라의 극심한 금욕주의에 심취해 진지한 종교화를 많이 그렸다. 심지어 자신이 그렸던 그림들을 태우기도 하는 극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수님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성모님의 무릎에 놓여져 있고, 발치에는 어김없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슬퍼하고 있다. 인물들의 극심한 비탄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며, 이 고난과 수난에 동참하기를 완곡히 요청하고 있다.

김은혜(캘리그래피)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5주일: 성무대 석전일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장 은퇴 감사미사
 때·곳: 3월 21일(주일) 1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회의
 때·곳: 3월 23일(화), 교구청 회의실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 '군중의 시간' 인니

-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